

청소년을 위한
독후활동지

학생용

덕을
덕을
덕을
펼치는
바람
풍



이승민 장편소설

미래인



덕을 펼치는 바람 덕률풍

- ★글 : 이승민
- ★청소년 소설
- ★출판사 : 미래인
- ★정가 : 13,500원
- ★분량 : 184쪽
- ★대상 : 중학생

1902년 최초의 전화기인 덕률풍 개통을 앞두고 강식이 아버지가 세운 전신대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조선의 통신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 경무사가 꾸민 계략이었지요. 통신기사 양성소인 전무학당에서 공부하는 강식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친구인 길용이와 순돌이, 그리고 병수 삼촌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강식을 배신합니다. 결국 강식은 전신대를 찾아내어 아버지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이 전쟁에 대비해 군용 전신권을 개설하려는 일본의 음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병수 삼촌에게 붙들린 강식은 아버지가 일하던 전화소에서 자신이 만든 전화기를 통해 학당 형들과 긴급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옵니다. 한편, 국권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가운데 일본은 조선 정부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통신권과 우편 사업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강식은 학당 형들과 함께 일본에 저항하기로 뜻을 모으고 맨몸으로 거리에 나가 한일의정서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주요 독후활동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덕률풍』의 제목과 앞표지를 보고 이 이야기의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하여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인물	
사건	
배경	

2 『덕률풍』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전화기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무성하던 시절, 역사의 잔혹함에 당당히 맞선 소년의 이야기

조선 최초의 전화기 덕률풍 개통을 앞두고 아버지가 세운 전신대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일제는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잡아가고, 어릴 때부터 알던 이웃들은 어딘지 모르게 수상쩍다. 조선 최고의 통신원을 꿈꾸던 강식이는 잡혀간 아버지를 대신해 사건의 실마리를 좇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데…….

1) ‘덕률풍’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2) 소설 『덕률풍』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3) 덕률풍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곰곰이 생각하며 읽기

-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덕률풍』을 읽으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책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 공감하거나 인상 깊었던 내용, 자신의 생각 등을 정리해 봅시다.

시대적 배경 알아보고 읽기	책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인상 깊었던 내용 정리하며 읽기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서 경무청으로 갑시다! 가서 억울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옵시다!” / 대오를 갖춘 일본 병사 사이가 옆으로 갈라지더니 말을 탄 남자가 또각또각 다가왔다. 조선인 무리 앞으로 나서서 으흠, 한번 헛기침을 하고는 바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봐주겠다.” / 일본 병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리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탕! 타당! 탕! 구경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골목길로, 거리로 도망쳤다. 나와 학도들 그리고 미륵사는 재빨리 통신원으로 뛰어 들어갔다. / 그러는 사이, 무리 모두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일본 병사들이 쏘아 대는 총구 아래 쓰러졌다. 쓰러진 사람들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에서 흐른 피가 땅바닥에 흥건히 고였고, 화약 냄새 때문에 코가 시큰했다.

(나) “좀 전에 육조거리 초소에 있는 공두에게 신고가 들어왔다. 개설될 한성 전화소에 전신대가 부러졌다고.”

아버지의 두 눈이 커졌다가 이내 가늘어졌다.

“전신대가 부러졌다니. 말도 안 되오.” / 얼마 후 경무사의 고탐이 허공을 갈랐다. 곧바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손검들 손에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헛발을 디디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가는 동안 두 번이나 넘어졌다.

강식이 아버지가 경무청에 잡혀 들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① 경무청에 맞서다
조선인들이 총에 맞다.

②

③ 아버지의 구속

2 (가)는 경무청과 조선인들이 대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902년 당시 경무청이 했던 일은 무엇이며, 윗글에서 조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1902년 경무청이 했던 일 : _____

조선인들이 요구한 것 : _____

3 아버지가 왜 경무사에게 붙잡혀 갔는지, (나)를 읽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주위를 보니 불에 타고 남은 재와 시커멓게 그을린 장작들 위로 아버지의 전신대가 보였다. 바로 전신대를 확인하니 밑동 부분에 톱자국이 선명했다. 이로써 누군가 일부러 전신대를 자른 게 분명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새겨 놓은 글씨가 그대로 있었다. 가슴이 절로 뛰면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때 갑자기 또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길용이랑 순돌이가 다시?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얼마 동안 거친 숨소리가 이어지더니 위쪽에서 흠흠 하는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흠칫 놀라 쳐다보니 경무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나) “본디 가까운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법이잖아. 식구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라니까. 그나저나 그 작자도 경무사처럼 시류에 따라 권력에 붙어 일을 벌이는 그런 놈이었네.” / 상상도 못 했던 말에 뒤통수가 뻗뻗해졌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뺨을 후려쳤다. 무슨 생각 하는 거야. 병수 삼촌이 그럴 리 없잖아. / “어머니, 어제는 말 못 했는데 전신대에 톱자국이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아버지가 잘못 세워서 전신대가 쓰러진 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예요. 병수 삼촌도 같이 봤으니까 그 사실을 입증해 줄 거고요.”

1 (가), (나)에 나타난 강식이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서 표를 완성해 보세요.

① 아버지의 전신대를 확인하니 밑동에 톱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으므로,



② 가까운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법이라는 말을 듣고,

2 아버지가 누명을 벗게 될 거라고 강식이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가)와 (나)에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가)

(나)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네 아버지 작업장에 통신기기가 있더라고. 알고 있어?”

순돌이가 불쑥 물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통신기기를 들여놓으려고 네 아버지 작업장을 빼앗은 것 같은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전신대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단서를 찾으러 가는 거고.”

(나) 잡역부가 허리를 펴면서 운을 뷔다.

“작업장에 있는 창고 말입니다. 거기에 통신기기들이 있던데 그것들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순간 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병수 삼촌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통신기기가 뭔지 아느냐고 되물었다.

“무전기나 전화기로 사람의 목소리를 전하고 듣는 뭐, 그건 거 아닙니까?”

병수 삼촌은 기가 찼는지 그저 웃었다. <중략>

“일본이 청국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 청국이 졌잖아. 그때 청국이 놓고 간 것들이야.”

“아, 그렇습니까. 흠, 그런데 청국이 놓고 간 걸 왜 가져온 것입니까?”

“그야 여기 작업장에 군용 전신권을 개설하려고 그런 거지.”

“군용 전신권이요? 그게 뭐니까?”

병수 삼촌은 당황했다. / 군용 전신권을 개설했다니.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1 경무사가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이유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나)를 읽고 답을 찾아보세요.

2 (나)에서 “내(강식)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우리랑 저 숲을 가로질러 가자. 그 끝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쪽 따라가다 보면 인왕산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보이거든. 같이 전신대를 찾아 경무청으로 가자.”

나는 바로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요.”

“뭐?”

해철 형님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저 때문에 순돌이가 총에 맞았어요. 형님들도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해철 형님이 성열 형님을 돌아보았다. 두 형님들은 동시에 피식 웃더니 내게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둘 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막내, 아니 강식아. 이제 이 일은 너만의 일이 아니야. 네가 한 말 잊었어? 조선의 통신권을 지키자고 했잖아.”

(나) “이 톱자국만 봐도 아버지는 죄가 없다는 걸 알 텐데 경무사님은 전신대를 허술하게 세웠다며 죄 없는 내 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작업장을 빼앗고는 그곳에 불법으로 군용 전신을 개설해서 왜군의 전쟁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경무사는 바로 반박했다.

“전쟁이라니 당치 않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나는 그저 조선의 미래를 위해 개설한 것이다. 나라가 흥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물을 제대로 다룰 줄 알아야 하니 통신기기들을 들여놓은 것이란 말이다.”

1 (가)에서 해철이가 강식이에게 한 말 ‘너만의 일이 아니야’는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써 보세요.

2 전쟁용 군용 전신을 개설하려 했던 일제의 음모가 (나)에서 드러납니다. 이에 맞서 전무학당 학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가)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써 보세요.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일본은 기어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번엔 노서아였다. 전쟁을 일으키고 얼마 후, 일본은 조선 황제에게 한일의정서를 내밀었다. 의정서 조항 안에 통신권을 장악하고 우편 사업도 확정 짓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 조항에 불복하기 위해 통신원의 모든 학도들, 그러니까 전무학도, 우무학도들은 오늘 궁 앞에 집결하기로 했다. / 나는 낫을 받아들고 통신원 학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모두 손질이 잘 된 학도복을 갖추어 입었고 손에는 각자 무기들이 들려 있었다.

(나)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는 선처하겠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떨리는 숨을 토해 내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두려움 속에서 눈빛만은 결연했다. 내가 입속으로 뭐라고 증얼거리자 성열 형님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나는 성열 형님에게로 바짝 다가갔다.

“우리 또 봐요.”

성열 형님은 영영 대답하지 않을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가 갑자기 말했다.

“그래 또 보자.” / 낫을 고쳐 쥐며, 나는 내 앞의 누군가를 향해, 혹은 나에게 혼잣말을 했다.

“나는 할 수 있다…….”

1 (가), (나)에서 보여준 강식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하여 쓰고, 만약 자신이 강식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하며 써 보세요.

2 (가)에서 한일의정서에 반대하는 군중집회에 참여한 강식에게 항상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나)에서 찾아 쓰고,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